

교수일반분과/동성애/01/

젠더 이데올로기와 후기구조주의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침례신학대학교
현 속 경

I. 서론

우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쓰나미 속에서 살고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인권을 파괴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국회 입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 시키려는 행위가 다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에서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기준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욕자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고자 했다(쿠비 104). 비이성애적 소수자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엔(UN)과 유럽연합은 이 원칙이 세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주도하고 있다(쿠비 103-107).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NAP)는 2017년 개헌안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였고, 국회에서는 성적 지향, 혹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여러 차례 입법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14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윤성 30).

이러한 정치적인 만행이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동조하는 듯 하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 혐오세력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또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옹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저변에 탄탄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현대 사상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후기구조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틀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시초를 제공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과 그의 이론적 여파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2.1 후기구조주의의 대동

후기구조주의는 20세기 초반 언어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사고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구조나 체계를 분석하는 구조주의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으로서 프랑스를 기점으로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래 순수학문적인 성격을 가진 구조주의는 그동안 전통 언어학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대안적 이론으로서 등장했다. 언어가 모든 사고체계의 기본이라고 여기며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지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구조주의 이론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후기구조주의 이론은 언어학이라는 순수학문 뿐 아니라 비학문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론이 확장 적용된 데에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그 중 눈에 띄는 움직임이 68혁명이다.

68혁명은 1968년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프랑스 정부에 대항하는 반체제, 반문화 시위운동이었는데 이 시위는 냉전과 베트남전, 인종차별 등의 시대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이 혁명의 움직임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서구 사회의 문제들—성차별, 인종차별, 권위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사회에서 억눌렸던 계층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흑인들, 여성들, 소수민족들(제 3세계 민족들)이 기독교의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이 가속화되었고 음지에 있던 동성애자들도 은근슬쩍 합세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과 함께 여성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이론이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했다. 후기구조주의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68혁명과 같은 사회적 혁명과 맞물려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활동과 사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후기구조주의와 그의 이론적 뿌리인 구조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수단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즉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내재된 규칙과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체계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접근방식은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에 의해 시작되었다. 기존의 언어학자들이 통시적인 언어의 역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쉬르는 언어의 공시적인 접근, 즉 역사, 문화적 환경과 상관없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 강의 자료를 묶어 출판한 그의 대표 저술인 *General Linguistics*(『일반 언어학』)에서 소쉬르는 언어의 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기호(sign)를 세분화해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구조화된 체계로서의 언어는 자기충족적인 하나의 완전체”(A language as a structured system . . . is . . . a self-contained whole)라는 소쉬르의 개념은 언어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Saussure 10).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분한다. 랑그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 체계를 의미하고 파롤은 실제 생활에서 개인이 발화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랑그는 전체적인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로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랑그라는 체계 속에서 사용되는 파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쉬르에 의하면 파롤은 랑그에 속하는데 이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언어의 의미는 개인의 발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체계 안에서, 즉 랑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인은 그 규칙에 따라 의미를 전달하고 받아 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안에 대한 사고는 개인의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결과 발화의 주체는 더 이상 말하고 이해하는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화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라는 구조에 있게 된다. 이러한 언어를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소쉬르를 구조주의 창시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소쉬르의 언어에 대한 접근 중 또 다른 특징은 기호(sign)의 재해석이다. 그는 기호(sign)을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분리시켜 이해했다. 기표는 기호의 실제 형태, 단어, 소리, 이미지 등을 의미하며 기의는 단어, 혹은 이미지가 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호는 기표와 그에 상응하는 기의의 결합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66).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연결점이 없고 자의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the linguistic sign is arbitrary”)(Saussure 67). 예를 들어 “나무”라는 개념을 한글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영어로는 “tree” 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어떤 개념을 나타낼 때 그 개념에 일대일로 상응하는 표기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과 그를 지칭하는 기표 사이에는 어떠한 내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그리고 소쉬르에 의하면 기호의 의미는 관계 속 “차이”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이다(“in a language there are only differences, and no positive terms”)(Saussure 118). 다시 말해, 기호의 의미는 그 자체의 고유한 어떤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표 간의 차이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다”라는 단어는 그와 반대되는 “닫다”라는 단어와의 관계의 차이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소쉬르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영향력 있는 구조주의자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이다. 그는 구조주의 인류학자로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구조주의를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의 구조, 사고체계를 밝히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 나아가 그의 언어학에 대한 응용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이론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는 『구조주의 인류학』(Structural Anthropology)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또한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현대 언어학으로

부터 사회현상에 대한 실질적 지식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환영해야 한다”(Levi-Strauss 1963: 31). 「구조주의 분석」(‘Structural analysis’)에서 나타나는 그의 인류학 연구에 대한 사고는 소쉬르의 언어학적인 개념이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전통 인류학의 잘못은, 전통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용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The error of traditional anthropology, like that of traditional linguistics, was to consider the terms, and not the relations between the terms)(Levi-Strauss 1967: 45). 그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삶 속이나 사회의 삶 속에 깔려 있는 변하지 않는, 각각의 원주민 부족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리나 구조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개인적인 특징들은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의 구조 속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의 언어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조주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어의 의미는 자의적으로 발생된다. 소쉬르에 의하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언어 체계 안에서 다른 낱말들과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임의적으로 생성된다. 두 번째, 사물의 의미는 그 사물 자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와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 관계는 전체의 구조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어떠한 사안에 대한 사고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결과 발화의 주체는 더 이상 말하고 이해하는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에 있게 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구조 중심적인 사고는 기존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 언어학에서 파생된 구조주의적 사상은 인간의 주체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의 전통 기독교사상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구조주의 안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후기(탈)구조주의는 모든 면에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전통 지식체계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구조주의가 등장한 지 불과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은 1960년대에 구조주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오류를 발견하며 그들의 이론을 비판 및 수정하며 기존의 구조주의 이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시기에 수정/정립된 이론을 후기(탈)구조주의라고 부른다. 구조주의의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후기구조주의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계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호의 생성과정 및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더 유동적이고 보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어떠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표간의 끊임없는 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보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조주의가 모든 구조 안에 존재하는 공통의 규칙을 찾고자 했다면 후기구조주의는 보편적인 규칙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다. 기표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다른 관계의 차이를 유발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가 지속적으로 유보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공통의 법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은 전무하다. 후기구조주의의 틀 속에서 인간은 의미생성 과정에 통로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구조주의가 관계

속의 차이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면 후기구조주의는 이러한 관계가 이분법적인 사고(남성/여성, 선/악, 논리/감정, 서양/동양, 흑/백 등)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이항대립은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관계를 생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며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을 인지할 때 가능한데 이는 결국 지배관계를 만들어냈고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는 전통 서구사상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Derrida 1981: 41-43). 서구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기존의 지식체계, 즉 기독교 사상을 해체하고자 했다. 요컨대, 근대 언어학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후기구조주의에 의하면 언어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지식체계는 자의적이며 관계적이고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궁극적인 의미, 혹은 중심적인 진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의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후기구조주의는 언어의 절대성을 믿는 기독교적 사상과 전면 대립된다. 요한복음 1:1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에서 말씀(Word)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미하며 창세 전 부터 존재한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창 1:1-3),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14)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전해졌다. 하나님 뿐 아니라 예수님과도 일치되는 이 말씀이 갖는 절대성은 인간의 사고의 틀 속에 규정지을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조하셨다(창 1:1-3)는 구절에 내포되어 있듯이 말씀은 이미 창세 전 부터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태초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한 창조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경에서의 말씀은 기표와 기의의 임의적인 조합이 아닌 완벽한 일대일 대응의 결과물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창 1:3)고 말씀하시자 그에 상응하는 사물인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 최초의 언어학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아담이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창 2:19).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기표와 그에 상응하는 기의가 완벽하게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언어가 실재를 반영하며 실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기독교 사상을 구조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의 주관자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타락-구속이라는 법칙, 혹은 구조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상의 원리는 절대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한다. 또한 이 구조 안에 존재하는 개체는 의미 생성의 주체로서 삶의 전 역사에 관여하시는 주관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후기구조주의는 시작부터 기독교사상에 반기를 들었고 70년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0년대를 기점으로 젠더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구조주의의 몇몇 대표주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기구조주의의 첫 번째 핵심 인물로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를 들 수 있다. 데리다는 차이(difference)와 지연(delay)

의 합성어인 “차연”(différance)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 단어의 개념을 통해 언어의 불변성과 기원을 전면 부정, 혹은 해체(deconstruct)시켰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어떠한 개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언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할 뿐이다. 그 관계를 통한 의미는 또 다른 단어와의 관계, 혹은 차이(difference)를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은 끝없이 지속되어 결국 궁극적인 의미는 지연(delay)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의미는 존재 하지 않으며 단지 언어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의 흔적(trace)만 파악할 뿐이다(1982: 7).

사회학자 및 동성애자였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텍스트, 혹은 언어와 사회/역사와의 관계, 즉 “담론”(discourse)의 형성과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권력의 작용을 풀어나가면서 근본적인 의미의 절대성을 부정했다(1990, pp. 100-102). 어떤 담론, 혹은 당시의 진리를 통시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의미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코는 담론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 담론을 둘러싼 관계, 즉 지식을 규정하는 권력에 의해서 담론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광기와 문명: 이성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에서 푸코는 광기를 규정하는 담론이 어떻게 시대별로 달랐으며 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권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실제 권력의 소유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없으며 실체가 없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불명의 힘이다.

구조주의의 이론적 한계를 인지하여 후기구조주의로 전환한 언어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이며 동성애자였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기호의 생성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의 단일적 결합을 부정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표는 다양한 기의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에서 해석의 무한성을 강조하며 의미 생성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 한다. 저자의 역할은 “이미 씌어진 문장들을 뒤섞거나 재결합하거나 재배치시키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존재는 독자라고 주장하며 “저자의 죽음”과 함께 “독자의 탄생”을 선포했다(148).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르트의 저자의 부재에 대한 주장은 성경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의 권위, 더 나아가 성경말씀의 권위에 전면 도전하는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후기구조주의에 영향을 준 불가리아(당시 공산국가) 출신 언어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모든 사안은 텍스트를 통해서, 또한 텍스트 안에서만 이해 가능하다는 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라는 용어를 창안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들 및 인용구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본연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텍스트 기원을 전면 부정하였다.

2.3 후기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

후기구조주의는 순수 언어학을 기반으로 탄생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시작

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 인간의 삶, 특히 “성”이라는 개념에 적용시켜 이 이론을 실제화시킨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이다. 퀴어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버틀러는 후기구조주의, 맑시즘, 페미니즘,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젠더 이론을 구축했는데 언어학자로서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이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그녀의 대표작인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나는 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사용한다”(1990: viii). 『젠더 트러블』에서 그녀가 주장하는 요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인 성(gender)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Gender comes before sex)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섹스의 범주는 그 자체로 젠더화된 범주이고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것이다. 섹스는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관습과 기대에 의해 후천적,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젠더라는 정체성이 자연화 되어진 개념이다 (34). 그래서 그녀에 의하면 섹스나 젠더 둘 다 철저히 문화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주요 논지는, “젠더는 수행적이다”라는 것이다(Gender proves to be performative)(33). 다시 말해, 젠더는 사회 속에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결과이며 선형적인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생물학적인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이나 사회적인 요구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고 비판하였고 더 나아가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 이성애 중심주의적인 담론은 권력 담론이라고 주장하며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 소수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로 확장시켰다. 이로 인해 그녀는 퀴어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다수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버틀러의 성과 젠더에 관한 비본질주의적 개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버틀러가 구축한 젠더 이론은 더욱 확장되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립으로 후기구조주의 이론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이론의 세상적 권위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비주류에 대한 포용, 유연성과 다양성에 대한 옹호가 보편화 되는 사회적/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전통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기독교적 가치는 구시대적이고 배타적이며 편협한 유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갇힌 자들은 절대적 진리의 부재를 외치는데 이들은 오히려 젠더 이론과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젠더 이데올로기의 절대성을 믿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III. 결론

젠더 이데올로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롬 1:28) 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롬 1:22) 여겨 지적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지적 교만의 결과물이다. 후기구조주의를 비롯한 현대 이론에 세뇌된 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반기독교적 젠더 이론을 우상으로 삼으며 동성애를 지지하며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하

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반대의 외침은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인다. 동성애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를 뒷받침해 주는 거대 담론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이데올로기, 그들의 패러다임을 깨기 위한 싸움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현대판 골리앗 앞에 맞서 서 있는 다윗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반성경적인 거대한 이론체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할 것이다. 미혹이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들의 언어, 즉 육신적인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고후 10:4-5)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말씀의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골리앗이라는 견고한 이론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때가 속히 오리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전윤성. (2019). 학회 발표 성평등 조례와 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회발표. 29-40.
- 쿠비, 가브리엘 (2018), **글로벌 성혁명: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라**(정소영 역). 서울: 밝은 생각. .
- Barthes, R. (1977), 'The Death of the Author.' Stephen Heath(trans.). *Image-Music-Text*(pp. 142-148). New York: Hill and Wang.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rrida, J. (1981). 'Positions' *Positions: Jacques Derrida*(pp. 37-96).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rrida, J. (1982). 'Différance.' Alan Bass(trans.). *Margins of Philosophy*(pp. 3-2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ucault, M.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Robert Hurley(trans.). New York: Vintage Books.
- Foucault M. (1965). *Madness and civilization*. trans. Richard Howard. New York: Vintage Books.
- Kristeva, J. (1980). 'Word, dialogue and novel.'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pp. 64-91).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vi-Strauss, C. (1967), 'Structural analysis.' Eds. Claire Jacobson and Brooke Grundfest Schoepf. *Structural anthropology*(pp. 29-53),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 Levi-Strauss, C.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C. Jacobson and B. Grundfest Schoepf. London: Penguin Books.
- de Saussure, Ferdinand. (198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La Salle: Open Court.